

■ 교육

2022-2023년도 공통원서 에세이 주제 7개

Common App은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하는 플랫폼이다. 이 원서 작성 플랫폼을 통해 900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각 대학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에세이 주제를 제시한다.

급년 주제는 지난해와 같다. 7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250단어 이상 650단어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한다.

1.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that is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If this sounds like you, then please share your story. (어떤 학생들은 배경, 정체성, 흥미 또는 재능이 있어서 그것이 없다면 그들의 지원이 불완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당신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2. The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can be fundamental to later success. Recount a time when you faced a challenge, setback, or failure. How did it affect you,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우리가 마주치는 장애로부터 얻는 교훈은 나중에 성공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도전, 좌절 또는 실패에 직면했던 때를 다시 말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3. Reflect on a time when you questioned or challenged a belief or idea. What prompted your thinking? What was the outcome? (당신이 어떤 신념이나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했던 때를 반성하라.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자극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4. Reflect on something that someone has done for you that has made you



happy or thankful in a surprising way. How has this gratitude affected or motivated you? (누군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감사하게 만든 무언가를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함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거나 동기부여를 했는가?)

5. Discuss an accomplishment, event, or realization that sparked a period of personal growth and a new understanding of yourself or others. (개인의 성장과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기를 촉발시킨 성취, 사건 또는 깨달음에 대해 논의하세요.)

6.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you find so engaging that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Why does it captivate you? What or who do you turn to when you want to learn more? (너무 매력적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주제, 아이디어 또는 개념을 묘사하세요. 왜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나요? 당신이 더 배우고 싶을 때 당신은 무엇을 또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7. Share an essay on any topic of your choice. It can be one you've already written, one that responds to a different prompt, or one of your own design. (자유주제: 당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공유하세요. 이미 작성한 메시지, 다른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메시지 또는 사용자 자신의 설계일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카본 캐년 레저날 파크 (Carbon Canyon Regional Park) - Brea

브레아에 있는 카본 캐년 레저날 파크는 개발과 야생이 공존한다. 특히 야생단지에 피는 꽃들은 봄날의 캘리포니아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요즘은 야생화가 반겨주지는 않지만 광활한 공원을 걷다가 흙길을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필자는 서울에서 온 친구와 함께 걸었다.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묵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는지 몰랐다면 서울에서 온 친구는 활짝 웃음을 지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우측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수를 끼고 오른쪽 가장자리 길로 걸어 공원 끝까지 가면 우측으로 흙길이 시작된다. 흙길을 따라 계속 걸다 보면 레드우드 단지가 반겨준다.

124 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공원이지만 60에이커만 개발되었고 개발된 공원 안에는 4에이커 크기의 호수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다. 개발된 지역 밖은 야생의 상태로 그대로 두어 동네를 걷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황무지 한가운

데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평균 강우량에 훨씬 못 미치는 비가 내려 흙먼지가 펄펄 날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걸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깊은 산림을 연상시키는 3에이커의 레드우드 지역은 꼭 걸어 보기를 권한다. 1975년에 씨를 심어 현재 44년이 지났는데 하늘로 곧게 쏘 뻗은 Red woods의 위용이 제법 그럴싸하다.

봄, 여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을과 겨울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공원으로 가기 전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를 정하고 떠난다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주차비: 주중 \$3/주말 및 공휴일 \$5

■ Carbon Canyon Regional Park
4442 Carbon Canyon Road
Brea, CA 92823
(714)973-3160 or (714)973-3162
웹사이트: <http://www.ocparks.com/parks/carbon>



▲ 카본 캐년 레저날 파크, 사진=타운뉴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